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최악 출생률 속 새로운 시도 포기 말아야…실효성 높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면서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국인 가사·육아인력취업자 감소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 김용준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개막일인 1인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서 한 참가자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부안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야영장

‘폭염’으로 몸살…온열질환자 11명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막을 올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야영장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 온열질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부안의 기온은 32.6도로,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유형별로 고열 4명, 탈수 4명, 열사병 1명, 실신 및 열탈진 1명, 발열 1명이다. 모두 스웨덴, 영국, 방글라데시, 미국 등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모두 치료를 마치고

/ 권도원 기자

오송참사 임시제방 부실조성 의혹…검찰, 금호건설 등 압수수색

검찰 “추가 확인할 부분 있어서 진행”…수사 의뢰 대상자 일부는 출국금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 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제방부실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며 “5개 업체의 본사와 지사를 합치면 모두 7곳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측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국무조정실은 검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

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은 소속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검토해 수사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가 소속된 행정기관에는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송원기 기자

수사 의뢰 대상자가 소속된 행정기관에는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송원기 기자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학립 고시 2학기 적용”

국무회의서 “인권 명목 법집행 막으면 국민 인권 침해돼…교권없인 학생 인권 공허”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헌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

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학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학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리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양순호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의 반쪽을 위한 KB금쪽같은 펫보험

내 별소리만 들려도 현관에 코를 박고
하루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반쪽인 너를 펑펑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KB금쪽같은 펫보험은?

1 반려동물치료비 (특약) **2 무지개다리위로금 (사망)(특약)** **3 반려동물양육자금 I, II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기재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생신나기 등을 수 있으며, 생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나 저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보호 안도는 본 보험기간에 있는 규제의 모든 예금보호상품의 해약금급 또는 민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순회보험협회 심의필 제87277호(2023.06.05~2024.06.04)

KB손해보험

“1군단 회관병 ‘입단속’…장군 뜨면 ‘별모양 냅킨’ 세팅”

육본 실태점검 나가자 “나 찌른 것 아니냐” 압박

육군 9사단 백마회관의 ‘16첩 반상’ 폭로 이후 상급부대인 1군단 간부가 소속 회관병들을 ‘입단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백마회관 특혜 의혹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1군단 복지회관인 광개토제일회관에 군단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나가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관리관은 설문과 상담이 끝난 뒤 한 회관병에게 “네가 나 찌른 것 아니야? 찌른 것 같은데?”라며 “인사과에 물어보면 누군지 다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단장 등 고위급 간부는 백마회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



백마회관 김칠 부조리 관련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소장

님이 오면 메뉴판에 없는 복어탕, 꽃게탕, 낙지탕탕이, 전복 샐러드, 장어 등을 주문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위급 간부가 식사할 때는 제철 과일과 경단·차 등 평소 제공되지 않는 후식을 냅고, 군단장이 식사할 때는 그릇 세팅을 위해 배치도를 만들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장성급이 예약하면 빨간 냅킨을 ‘별’ 모양으로 접어 새 사기그릇에 얹었고, 대령·원사급은 기존에 쓴던 사기그릇에 빨간 냅킨을 ‘왕관’ 모양으로 접어 얹는 등 계급별로 세팅을 달리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관리관은 쉬는 시간에 주방에서 준다며 회관병 뺨을 때리고 골프채로 위협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러한 폐습을 극복하려면 회관 운영을 군인 아닌 민간에 맡겨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는 육군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전 군 회관 운영을 중단하고 현역·전역자를 포함해 회관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육군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복지회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9사단 지휘부가 백마회관에서 16첩 반상 한정식 등 메뉴에 없는 음식을 제공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육군은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고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 중이다.

/ 임성준 기자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찾은 김건희 여사

“김여사 캄보디아 사진은 콘셉트”

장경태 의원 검찰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40·서울 동대문을) 의원을 31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명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의 사진을 ‘콘셉트 사진’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당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소년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해 꾀유를 기원하면서 이 소년을 안은 채 사진을 찍었고 이를 대통령실이 언론에 배포했다.

장 의원은 배포 옛새 뒤 당 최고위원

회 회의에서 이 사진을 두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등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설정)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인터넷 게시판의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리고 이를 SNS에 게시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영 당시 조명등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김희찬 기자

1인당 800달러…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 집중단속

인천공항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출국 시에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공항세관은 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데 따라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 신희성 기자

한미일 정상, 캠프데이비드서 ‘산책 외교’…“다양한 친교”

18일 당일치기애 회담 전후 부부동반 오찬·다과 조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나란히 ‘친교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데이비드는 골프장과 테니스장, 승마장, 사격장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갖춘 여의도 6분의 1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휴양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산책을 비롯해 다양한 친교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회의 전후로는 부부 동반 오찬과 다과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친교 산책에는 ‘페스트 도그’라 불리는 바이든 대

통령의 반려견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친교 이벤트가 마련될 여지도 있다. 그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연하게 일정이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형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 소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 전 캠프데이비드에 초청받았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주면서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정상 간의 내밀한 대화에 중점을 둔 만큼 현장 수행원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나머지 참모들은 100km 남짓 떨어진 워싱턴 DC에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상들이 다른 일상사에 얹매이지 않고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에도 한 층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캠프데이비드 방문 자체로 종일 친교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셈”이라며 “한미일 정상 간의 우애를 과시하는 의미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담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문 내지 합의문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발표문에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 회의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쿼드’와 버금가는 안보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회의의 의제와 관련,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향후 3국 간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머물렀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당일치기로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한다. 현재로선 만찬이나 숙박은 겸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양자 회담에서는 한미·한일 간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김강우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해병대 “소방당국서 강가 수색 안전유의사항 통보 못받아”

‘외부발설 금지’ 사령관 지휘서신은 “혼란방지 차원” 해명

해병대가 지난 달 말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당시 소방당국으로부터 강가 수색작업과 관련한 안전유의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소방당국이 해병대에 사전위험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소방당국의 안전유의사항 통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과장은 “신속기동부대가 17일 오후 1시 22분 경북 예천군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에서는 오후 1시 반에 설명했다고 한다”며 “당시 신속기동부대는 소방당국의 지휘소에 들어가 수색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한 바는 있으나, 안전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이 해병대 측에 물이 있는 강 둔치를 수색하고, 강과 맞닿은 경계 지역은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을 금지하

라며 사고 위험을 경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지휘서신을 보내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라고 ‘외부발설’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 과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배성원 기자



개방형 고드름 쉼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

역대급 폭염에…건설사들, 고드름 쉼터 만들고 아이스조끼 지급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거부…“2차 피해 최소화”

“시에 피해대책 법적 의무…상영은 성폭력 피해여성 권익에 악영향”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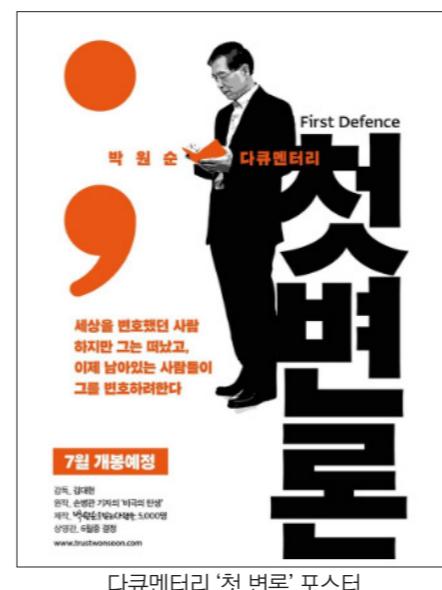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

여성들의 권리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월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 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다.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서울시도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 정희성 기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무더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 질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는 혹서기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 근로자에게는 아이스 조끼를 지급했다.

아울러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식염 포도당, 이온 음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안전사고 대비 활동도 병행한다. 수시로 흙막이를 점검하고 침수지역 작업 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반도건설은 전국 25개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 컵 빙수, 도넛, 수박하е 스무디, 마들렌 등을 현장 근로자에게 제공했다. 또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햇빛 가리개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과 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태영건설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 현장의 대응상태를 점검했다.

태영건설은 혹서기 기본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무더위 시간대를 이용한 폭염 대비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또 폭염특보 발효 시 자체 사전알림 프로그램인 자동 문자 발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현장 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시보기를 모든 현장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문채윤 기자

크레온 by 대신증권 Daishin 증권

**수수료도 이자도
지웠다**

국내주식 수수료 **미국주식 수수료** **신용 이자**

0 0 0

1개월 간,
이후 평생무대 (유관비용 부과)

2개월 간, 이후 10개월 0.07%
(매도 시, SEC Fee 0.0008% 별도 부과)

1~7일 간

고객감동센터 1588-4488

*대출금리(신용이자율)은 연 0% (1~7일 동안 적용, 이후에는 기간에 따른 이자를 적용)-9.5%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우대는 이벤트 신청자에 한하여, 신규/미거래 고객 대상 (-2023.08.31)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참고 *투자 계약(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아님 *자산기각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0.1972959%(모비일 기준), 홈페이지 참고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0.3%, 홈페이지 참고 *미국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 시 0.0008% 거래세(SEC Fee) 부과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담보증권 임의처분 유의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사필 제23-02763호 (2023-07-28 ~ 2024-07-27)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육정 대표 구속기소

‘용역물량 확대 청탁’ 배임증재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육정(69) KDFS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옮겨놓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허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회삿돈 약 48억원을 빼돌렸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가 KT 본사 임원들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기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증재 등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증거인멸 및 도망 혐의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 권정석 기자

외국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책 미비…방 1칸 간절”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현실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와 그의 아내, 어머니 등 가족들도 나왔다. 고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고씨는 “낙찰자로부터 이번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삿짐을 싸고는 있는데 갈 곳이 없다”며 “당장은 가족이 거주할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관련 기관들은 하나같이 국민이 아니라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른 식구들은 각자 고시원이라도 들어가 신다고 해도 저의 딸은 이제 고작 8살”이라며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는 방 1칸을 얻을 수 있게 해달란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재외동포청장과 인천시장, 국토부장관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곡히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근수 기자

이동관 “언론은 장악될수없고 장악해서도 안돼…자유엔 책임 따라야”

“가짜뉴스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주장 무책임 전달하는 건 언론 본령 이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는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권 등의 언론 장악 시도 주장에 대해 “나는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자유민주 협정 질서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보자는 이어 “2017년 전후해서 이

를 불은, 광풍처럼 돌아쳐서 조선시대 사회라고까지 얘기했던 적폐 청산이란 계획”이라며 “내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

겠느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는 물음에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언론은 겸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내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의심하고 겸증하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물음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 두 줄로 요약하면 바로 돌려줬고 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30 청년작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잇단 ‘김은경 실언’에 당내 불만 고조

민주 혁신위 ‘흔들’

‘왜 미래 짧은 분이’ 발언

‘노년층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잇단 설화에 훈사이며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냐”라고 부연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현대판 고려장”, “어르신 페미 DNA” 등으로 공세를 폈다.

혁신위가 하루 뒤 입장문을 내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구체 프레임”이라고 방어하려 했지만, 노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은 이미 평질 대로 퍼진 뒤였다.

무엇보다 이 발언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내에서 조차 손가락질받았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1일 SBS라디오에 나와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인데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하겠다니,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맹비난했다.

/ 홍명섭 기자

김기현 “김은경, 野 노인비하 DNA 화룡점정…천벌 마땅 망언”

“함량 미달 인물을 임명한 이재명, 연대 책임져야…혁신위 해체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일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노인비하·폄하 DNA를 재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여름휴가 중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지 자신들과 생활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배

세대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라도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

다면 천벌 받아 마땅할 그런 망언은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런 천박한 인식을 가진 자를 혁신위원회장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넉넉히 짐작된다”며 “마치 혁신하는 듯 시늉하지만 실제로는 진보를 거슬러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 본인이야말로 혁신 대상이자 징계 퇴출 대상”이라며 “민주당 혁신위는 김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의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함량 미달 인물을 혁신위원회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형준 기자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국회 표결없이 구속심사

체포안 부결 7주만…수수의원 특정 등 입증자료 보강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8월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용수 씨를 구속수사하고 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현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뿐이라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에 6천만원 살포 혐의…검찰 “반현법적 범죄”

은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28~29일 이를간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 투성이”라며 “이 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 역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쟁복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 백경현 기자

**기업에 딱! 맞는
삼성SDS 클라우드로
간결하게 해결했습니다**

Cloud. Simply Fit

삼성SDS 클라우드

우리 기업에 딱 맞는
기업 클라우드를 원한다면
삼성SDS 클라우드를 만나보세요. A부터 Z까지 쉽고 간결해집니다

SAMSUNG SDS



‘라임 배후’ 김영홍에 리조트 매각 전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필리핀서 원격 도박판 벌여…공범들 줄줄이 실형 또는 집유 확정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영홍(50·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박자금공급처로 알려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김 회장에게 팔아넘긴 전 대표와 간부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27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A(59)씨, 간부 B(64)씨와 C(60)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김 회장에게 리조트를 매각한 2018년 10월 전부터 리조트 안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다.

리조트 매각 전인 2016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던 D(40)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판

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도박장을 함께 운영한 또 다른 일당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 송진영 기자

‘검찰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한동훈, 어처구니없는 변명”

‘잉크 휘발’ 발언 비판…추가 정보공개 청구 방침



정보공개 소송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기록을 공개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우 변호사는 “카드전표 원본을 대조하거나 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확인시켜주는 방법도 있는데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 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측근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8년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약 3천500억 원을 투자받아 이 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조6천억원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몸통’으로도 의심받는다.

검찰은 2021년 11월 도주 중인 김 회장을 기소 중지했다.

/ 송진영 기자

속초해경, 정박 중이던 침수 어선 무사히 구조

정박 중 침수 사고를 당한 어선이 해경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3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께 속초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가리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와 속초파출소 순찰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오전 10시 49분께 선박을 무사히 구조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해당 선박의 기관실에 약 1m 30cm 정도, 선수 어창에 약 80cm 정도의 물이 유입된 것을 확인한 뒤 소방과 협동으로 어창에 유입된 물을 배수했다. 또 유류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한 기관실 물은 해양환경공단 유류 적색 차량을 이용해 전량 수거 조치했다.

아울러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를 막고자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침수 사고는 재산 피해는 물론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선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어민들에게 당부했다.

/ 백건우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사전 계약 종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임원 취소 부당” 주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내달 대법 선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폐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2019년 현암 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청문을 하기에도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장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 박민수 기자

“배달기사를 딸배라고 비하?”…둔기로 10대들 위협한 50대

공원에서 숲에 취해 10대 학생들을 둘기로 위협하고 20대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둔기로 10대 학생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에 있던 2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으며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배너 지지대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학생들이 배달 기사들 비하하는 ‘딸배’라는 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직업을 확인한 결과 배달 기사는 아니었다”며 “실제로 A씨가 주장하는 말은 피해자들이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효준 기자

“日정부 내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의견 대두”

외무성 고위당국자 “尹대통령 체면 지켜주는 게 도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본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레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에서는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여름으로 예고한 방류 시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어민 설득 등

국내 여건을 더 조성하고 한국에 대한 배려 등 주변국 상황도 신중하게 분석하면서 최종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설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오염수 방류를 가을로 미루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방류 개시 시점이 8월 말께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을 주로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어민 설득을 위해 이달 중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강희성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미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에 계속 사기혐의 재판” 결정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 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레이코프 판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의 말을 “그들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신원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법원은 SEC가 2020년 12

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난 6월 판결한 바 있다.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6월 심리에서도 권도형 측에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목하고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1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나 권도형 측은 그동안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 박민수 기자

모스크바 다시 피격…기업·상가 밀집지에 새벽 드론 기습

우크라, 러 미사일에 보복…후방교란·내부 공포주입 시도인듯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이를 만에 다시 드론(무인기) 기습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가 작년 2월부터 지속하는 침공 전, 주요도시 미사일 폭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으로 추정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고층 비즈니스 센터 건물이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아 1개 층이 손상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드론 몇 대가 모스크바로 비행하던 도중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에 동원된 드론 중 1대는 지난달 30일 드론 공격을 받은 ‘모스크바-시티’ 고층 건물까지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 시내 서쪽에 있는 모스크바-시티는 기업 사무실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로 20여층에서부터 100층이 넘는 여러 현대식 고층 건물이 모여있다.

소바닌 시장은 “1개 건물 21층 전면이 파손됐고 150m 넓이의 창문들이 부서졌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피습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1일 새벽 모스크바 방향으로



드론 공격으로 일부 파괴된 모스크바 건물

3대의 드론 공격이 있었으나 2대가 방공망에 격추되고 1대는 전자전 장비에 요격돼 모스크바-시티의 비거주 건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바닌 시장은 사상자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은 이날 모스크바 서남쪽 외곽에 있는 브누코보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브누코보 국제공항은 대통령의 해외방문 및 외국 국빈들의 러시아 방문길에도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드론 공습 사실을 시인한 뒤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당시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아침에 우크라이나 드론 3대가 모스크바를 향하다가 1대는 방공망에 격추되고 2대는 전자전 장비로 요격돼 모스크바-시티 부지 내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지 관영 타스 통신은 50층 건물의 5층과 6층이 파손됐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이날 공격이 전쟁을 면 얘기쯤으로만 여겨온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 인정을 피하고 있지만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모사드 수장 최근 비밀리 방미”…이스라엘-사우디 해빙 논의

재선도전 바이든, 내년초까지 이스라엘-사우디 관계정상화 목표

이스라엘 정보 기관인 모사드 수장이 최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미측 요인들과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앤시오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약 2주전 워싱턴에서 제이크 살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 아모스 호치스타인 국무부 에너지 특사 등과 만났다.

이들 연쇄 회동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이른바 ‘사우디 이니셔티브’가 주된 의제였다고 앤시오스는 소개했다.

바르니아 국장의 방미 협의후 살리번 보좌관은 맥거크 조정관과 호치스타인 특사를 대동한 채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실세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미국과 사우디, 이스라엘 3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우디 이니셔티브’를 성공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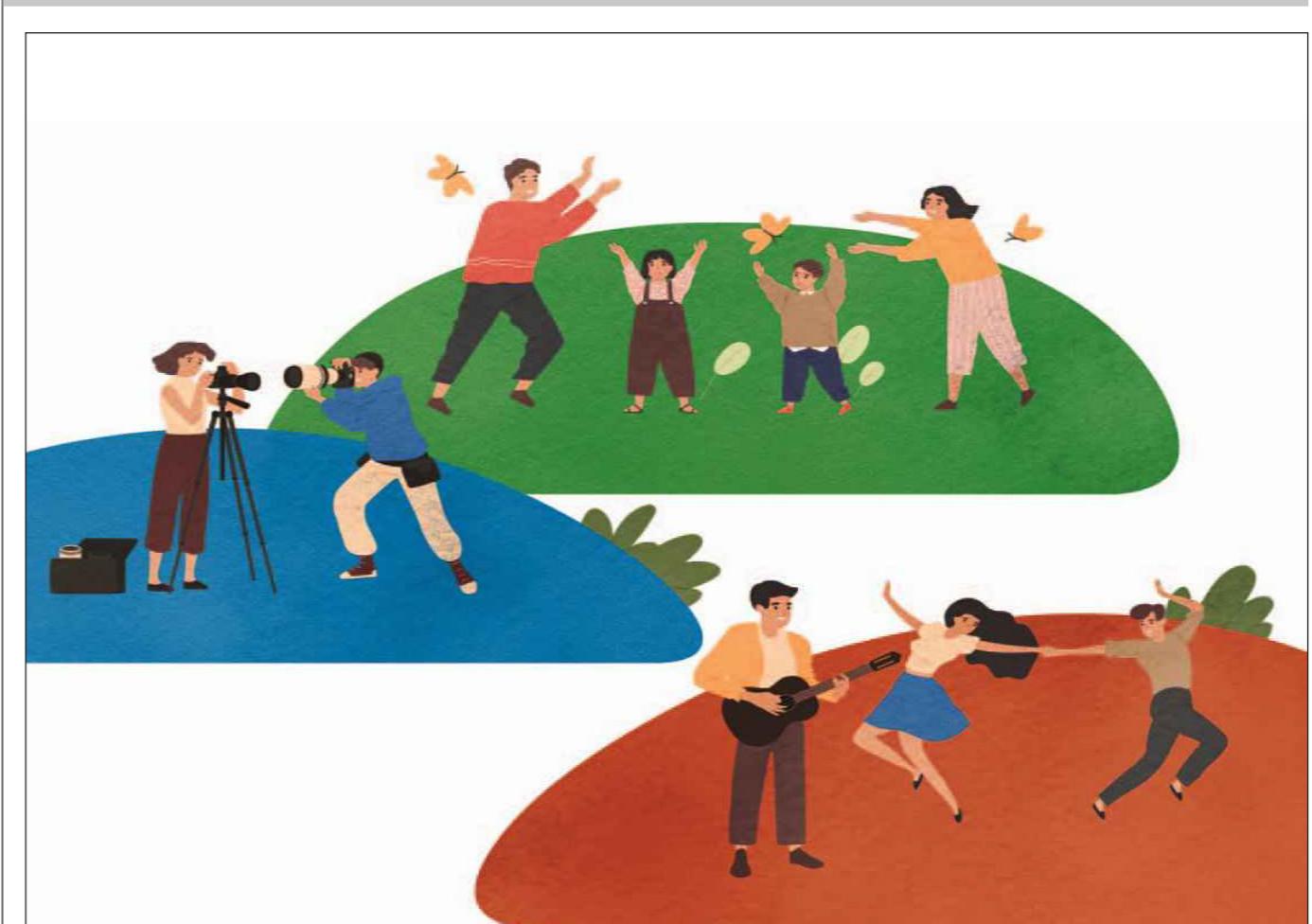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다비드 바르니아(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우선 2014년 발발 이후 이란과 사우디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한 예멘 전쟁 종식을 포함한 중동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미중 전략경쟁 관련 중요 포석의 의미도 있다.

미국으로선 사우디가 러시아와 손잡고 국제 유가 상승을 이끄는 상황을 막는 한편 사우디가 중국에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황민우 기자



당신의 꿈과 DB의 꿈이 함께

꿈을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소통하고, 변화하는
세상 모든 당신

꿈꾸는 당신과 함께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Dream Big DB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국세청, 유권해석

구입 가격 이하 판매 허용…“가격 하락·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천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천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



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천원 공급받은 맥주를 2천원, 혹은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5천~6천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규모 구매·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길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 임민호 기자



그린수소 생산설비 실증 착수 기념행사

제주도, 30㎿ 그린수소 만든다 1만 가구 1시간 전력사용량

산자부 공모 선정, 제주시 조천읍서 2025~2030년 진행

제주도가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10㎿ 알카라인 수전해(물의 전기분해)와 5㎿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기술개발을 위해 각각 2개의 시설로 총 연간 30㎿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현하는 연구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민구진 기자

서 예비타당성 심의 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6년간 진행된다.

도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 사업 부지가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 계통연계, 사업 확장성 등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도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3㎿, 12.5㎿ 그린사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청정 수소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이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임여전력을 그린 수소 생산에 활용하면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목표인 21.6%를 가장 먼저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신경준 기자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

7월 한달간 ‘청년도약계좌’ 25만3천명 만들었다

8월 가입신청 1~11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3천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가입 신청을 한 76만1천만명 중 개인 소득·가구 소득 요건 등을 따져 실제 계좌 개설에 이른 청년 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익월에 정부 기여금이 적립된다.



이달 가입 신청자는 28만2천명이다.

이와 별도로 6월에 신청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 중 15만8천명이 재신청했다.

8월 가입 신청은 1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가입 요건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남정윤 기자

벤처기업협회,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벤처기업협회는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2023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C2023)에서 운영할 한국관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7~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변환, 도시환경, 모빌리티, 정부, 공유 도시 등과 관련해 150개 이상의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관 참가자에게 사전 해외마케팅과 홍보, 부스 임차료, 등록비, 통역 비용 등을 70% 지원하며 편도 해상운송비(업체당 1CBM)도 지원한다.

참가 확정 기업에는 현지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미팅 주선, 카탈로그 제작, 현지 홍보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벤처기업 협회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을 통해 받는다.

/ 오채현 기자



“폭염도 재난”…서울시, 피해 최소화·취약층 보호 총력전

복지시설에 냉방비 7억 추가지원…쪽방촌은 밤더위 대피소·쿨링포그 확대

서울시는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 재난 대응 수준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7억3천5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760곳이며 시설면적과 정원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7~8월 냉방비를 보조한다. 추후 폭염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쪽방 주민을 위한 ‘밤더위 대피소’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빈자리가 있으면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쪽방 주민이 7~8월 목욕과 잠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밤더위 대피소는 ‘쪽방촌 동행목욕탕’ 7곳 중 3곳이 지정됐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만난 오세훈 시장

으며 이달 들어 26일까지 412명의 쪽방 주민이 찾았다.

현재 쪽방촌 중 영등포 1기, 돈의동 4기, 남대문 1기가 각각 설치된 안개 분사기(쿨링포그)는 동자동 쪽방촌에도 2기를 추가 설치한다. 안개 분사기가 작동하면 주위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쪽방촌 복도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해 불편을 겪는 가구

를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이동형(창문형) 미니 에어컨도 설치할 예정이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거리 순찰도 강화한다.

혹서기 응급구호반 51개 조 120명이 하루 4회 이상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생수 등 구호품을 나눠주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폭염이 이어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대피명령 발령도 검토한다.

쪽방촌에는 특별대책반 10개 조 20명이 하루 2회 이상 순찰 활동을 하며 쪽방 간호사가 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자 150명의 거주지를 방문해 수시로 관리한다.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약 4천200곳을 9월까지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취약 어르신 3만8천71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3천279명이 매일 또는 격일로 안부를 확인한다.

취약계층에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원), 의료비(100만원 이내), 냉방용품(쿨링포그·냉풍기 등 10만원 이내 현물)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120)로 연락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에 취약계층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8월 한 달은 폭염 재난에 상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성 기자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광규 순천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 홍보관 부스를 둘러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순천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남과 협력해 대한민국 바꾸겠다”

로컬콘텐츠 페스타·정원박람회 참석…다섯번째 호남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년 로컬콘텐츠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봤다.

김 지사는의 호남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다섯 번째이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상생발전 협약식, 11월 광주 로컬콘텐츠 페스타, 올해 1월과 5월 각각 전북도, 광주시와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은 두 달 만의 호남 일정이다.

이번 2박 3일 순천 방문의 목적은 생태와 기후변화에 관한 ‘혁신 맞손’ 협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C 광주방송 주최 로컬콘텐츠 페스타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백팩 하나 메고 아내와

전국을 2년 반 다닐 때 가장 먼저 왔던 곳이 순천”이라며 “머무는 동안 많은 전라도민을 만나고 또 우리 국민께도 남도의 아주 자랑스러운 풍취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정치는 둘로 쪼개서 끝 간 데 없이 싸우고 있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쪼개지고 있다. 경기도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 더 커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정치적 소신 발언도 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호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또 호남과 협력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권순호 기자

인천시, 의료관광객 유치 기지개…카자흐스탄서 물꼬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의료관광 흥보센터를 열고 현지 의료관광객 50명을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들은 이날부터

2개월간 순차적으로 입국해 인천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유명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이번 의료관광객 유치에는 알마티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인천관광공사(하버파크호텔)가 항공료·숙박비 할인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알마티에 인천의 전문병원과 진료과목,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센터를 열었다.

시는 올해 의료관광객 1만3천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2019년 2만4천864명으로

용인시,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조사…방제 계획 수립 예정



경기 용인시는 외래해충 방제 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돌발 외래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돌발 외래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에 정착한 후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해충을 의미하며, 돌발해충이라고도 부른다.

돌발해충은 농작물과 농경지 주변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거나, 분비물을 배출해 해를 입히고 외관상 혐오감을 준다.

이번 조사 대상 작물은 감, 블루베리, 복숭아, 밤, 사과, 배, 매실, 포도, 살구, 대추, 인삼, 콩 등이다. 시는 과거 돌발해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주변 산림, 휴경지, 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한 곳당 대상 작물 10그루 이상에서 성충 유무, 피해 가지 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해충 발생 면적과 발생 정도 등을 파악해 데이터를 ‘국가 농작물 병해충시스템’에 입력해 방제 시기와 범위 설정, 비용 산정 등을 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돌발해충이 곳곳에서 늘어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발생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해 방제 계획을 수립,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2020년부터 매년 돌발 외래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700여 농가에 5천만원의 방제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김현중 기자

SH공사 “무량판구조 건축물 9곳 조사 결과 이상 없어”

‘사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적용방식 조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재 설계·시공 중이거나 최근 5년 내 준공한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구조 건설자재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이 적용된 건축물 총 9곳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 이상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9곳은 5년 내 준공한 21개 중 8개 단지와 설계·공사가 진행 중인 12곳 중 1곳이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준공한 단지 8곳은 구조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또 설계·공사 중인 현장 1곳은 적정하게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과거 준공한 단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안전진단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방화동 행복주택에서 철근 배근을 확인하는 SH공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단보강 철근탐사,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강도 시험 등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현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서울시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방침에 따라 서울형건축비, 서울형감리제도 등을 적용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백년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민희진 기자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 (갱신형·무배당)

더욱 새로워진 간편패키지 보장보험을 만나보세요!

상담문의 080.363.6363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금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며 보호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기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2755호 (2023-06-27 ~ 2024-06-26) 종별감시인 확인필 CS 23-06-029

www.hanwhalife.com



제주 2공항 반대 53.2%, 찬성 41.1%…76.6% “주민투표 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 현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묻는 말에 52.2%가 ‘현 제주공항 확충’이라고 답했다.

성산에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30.2%였고, 한때 대안으로 거론됐던 정석비행장 활용은 10.3%, 현 제주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은 2.4%였다. 또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1.1%, 반대한다는 의견은 53.2%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6.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 다’(20.7%)는 의견을 압도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수



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가 50.3%, ‘공론조사로 제주도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가 29.9%로 나타났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는 ‘오염수를 투기한다면 제주도 해안이나 수산물이 오염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2.7%가 ‘잘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것으로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연대(38%), 원산지 표시 강화와 방사능 안전성 인증제 시행(24.8%),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19.7%), 수산업·관광업·소상공인 등 피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

원(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이번 여론조사로 도민 다수가 여전히 제2공항을 바라지 않고, 이에 더해 찬반과 무관하게 제2공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며 “주민투표가 민의임은 명확하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사회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강력한 대응으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 오영훈 지사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연대회의와 제주의 소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제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 광도준 기자



미 피츠버그에 ‘포항 무궁화길’ 조성

한국전 참전용사 기려

경북 포항시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에 ‘포항 무궁화길’을 만들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7일(현지시간) 피츠버그시 노스쇼어 리버프론트파크 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에서 포항 무궁화길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한국전에 참가한 미군 병사 178만명 가운데 서부 펜실베이니아 출신은 40만명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 무궁화길을 통해 피츠버그시에 포항시를 널리 알리고 두 도시 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교류를 이어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준 기자

개통 5년 사천바다케이블카, 누적 탑승객 300만명 돌파

사천바다케이블카가 개통 5년 만에 누적 탑승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31일 경남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는 2018년 4월에 개통해 23일 만에 탑승객 10만명을 기록했다.

이후 약 350일 만에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고 지난 29일 300만명을 기록, 누적 매출액 440억원을 달성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바다와 산을 모두 오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케이블카로 선로 길이만 243km에 달한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입소문 났지만,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초속 22m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안정적인 탑승환경을 위해 흔들림이 적은 자동 순환 2선식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최신 기술을 모두 합쳐해 설계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 대처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자체 구동 엔진을 장착한 특수 구조차량이 케이블카에 직접 접근해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상 구조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췄다.

그 결과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2019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등 고객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 박현우 기자

울산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에 7천억 민간투자 추가 유치

‘5대 전략과제·13개 핵심 분야’ 특화단지 육성전략도 발표



의에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총 6개 사업단지와 13개 선도기업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 중 고려이연, STM 등 기존 주력산업 기업 11개사를 이차전지 소재 선도기업으로 전환하고, 삼성SDI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의 국내 최초 첨단 이차전지 생산을 확대해, 현대차 등 전기차 선도기업에 공급·리사이클링하는 ‘전주기 벨류체인 완결형’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5개 전략과제, 13개 핵심 분야, 28개 세부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제는 ▲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 복합 협력 지구 조성 ▲ 소재·부품·전지제조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 규제·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전주기 인프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와 실증센터, 평가·인증센터를 세워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에너지밀도·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기술과 재자원화 기술, 재활용 시스템 등을 개발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 노지훈 기자

대구 군위군 면적 70%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된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31일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 시와의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협의해 준 흥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대구시는 편입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세력 방지 등을 위한 조치라 밝혔으나 군위군의회 등 지역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 양승민 기자



2023 대백제전서 무령왕 집중 조명…공주시, 세부 연출 확정

개막식서 무령왕 테마 주제공연 선봬…웅진판타지아도 무령왕 일대기 그려

충남 공주시는 '2023 대백제전'에서 선보일 23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연출 및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란 주제로 펼쳐지는 대백제전에서 백제의 중흥을 이끈 한류의 원조로 불리는 무령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식에서는 무령왕을 테마로 한 주제공연과 불꽃쇼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축제 주 무대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선보일 대표 프로그램 웅진판타지아도 무령왕의 일대기를 담는다.

시민화합형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는 '백제 흥(興) 나라'를 주제로 무령왕과 백제, 백제유물을 형상화한 무빙 스테이지를 활용해 공주만의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한다.



공산성 금서루 앞 연문광장에 설치된 무령왕 동상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수상 멀티미디어 쇼에서는 천상의 물길로 한류를 이끈 무령왕의 이야기가 미디어 아트관이 설치 운영된다.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애경도 올해는 더 아름답게 밤하늘과 금강을 수놓는다.

금강신관광원에서는 '백제를 만나러 가는 문'을 연출한다.

3개 둘 구조물 안에서 다양한 백제를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관이 설치 운영된다.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애경도 올해는 더 아름답게 밤하늘과 금강을 수놓는다.

공산성에서는 미디어파사드와 레이저, / 손현수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다채로운 웅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연출하고, 금강과 미르섬에서는 백제유물을 형상화한 대형 오브제와 황포돛배 등으로 아름다운 백제의 밤을 밝히게 된다. 입장료 징수 시스템도 개선해 당초 미르섬에 한해 받은 입장료를 행사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주시민은 무료다.

최원철 시장은 "2023 대백제전을 통해 백제 역사문화는 물론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 대백제전'은 무령왕 서거 1500년, 성왕 즉위 1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 손현수 기자



양수댐 추진 반대 기자회견하는 구례 문척면 중산리 주민들

"야생생물 터전" 구례 중산리 주민들, 양수발전소 추진 반대

전남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일부 주민들이 지역 양수발전소(양수댐)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구례 중산리 양수댐 건설에 반대하는 중기마을 주민들'은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수댐 추진 포기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한국중부발전과 구례군, 구례군 관계자는 "나자와 기술성을 고려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없는 곳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문척면 일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마을 대표 설명회와 마을 주민 설명회, 타지역 발전소 견학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소 공사에 통상 7년이 소요되고 공사비의 60~70%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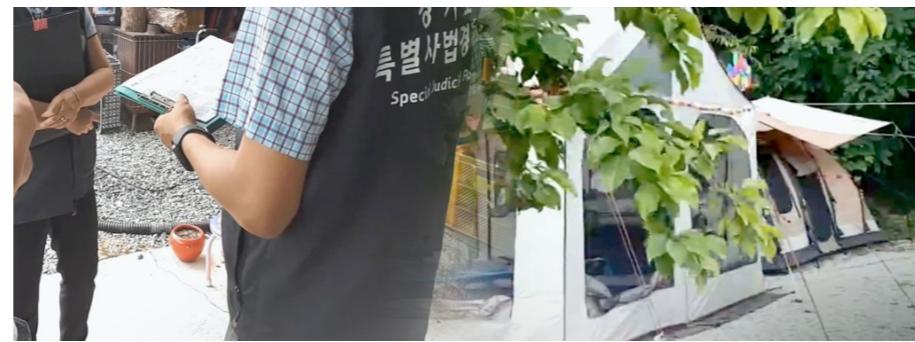
구례군 "1조원사업 지역 경제 긍정적…주민 의견 수렴 거쳐 결정"

구례군은 지난 5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계족산에 상부댐을, 중산천 하구를 막아 하부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1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계족산에는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와 담비가, 중산천에는 수달이 산다"며 "양수댐이 들어서면 단풍길이 수몰되고 야생생물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다. 중산천은 하부댐으로 물이 고여 썩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 황민규 기자



강원도, 무허가·미등록 애영장 실태 점검

필요시 고발 조치

강원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무허가 또는 미등록 애영장(캠핑장)에 대해 8~9월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시·군에서 관리 중인 640여곳의 애영장을 현장 점검하고자 산지, 농지, 해수욕장 등 각 부서와 협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도는 우선 미등록 애영장 단속을 위해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

터링을 통해 의심 업체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애영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지 등 문제점에 대해 현장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등록 애영장은 등록을 거쳐 영업하도록 계도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다음 달 2일 제2형사에 서 관계 부서와 18개 시·군 담당자가 참

석한 가운데 '무허가 애영장 관리대책 간담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도내 등록된 애영장은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이나 강원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준태 관광국장은 "기존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관광객이安心하고 이용하도록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황민규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알고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세상의 모든 연결이
더 행복해지도록

**모두를
잇다.**

[이-I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를 잇다-연결편' 광고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모델 강태오

하나증권 모델 강태오

CC 브랜드 227025-0164

삼척시 어르신 이불 세탁, 기초단체장 일자리 공약 '우수상'



시는 '행복한 일자리, 즐거운 노년, 함께하는 사회,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로 세 마리 토끼를 잡다'를 주제로 참가했다.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는 훌봄 및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이불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서비스다.

생활필품 구매 대행·배달, 돌봄서비스, 우유 배달을 통한 훌봄 어르신 안부 확인 등도 함께 제공한다.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도계읍에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2022년 3월 원덕읍에 2호점, 2023년 3월 미로면에 3호점을 각각 개소했다.

현재 근데면에 4호점을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사업에 함께 참여한 시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홍수 취약' 괴산댐…“다목적댐 전환” vs “비현실적 대안”

정치권, 댐 리모델링 촉구…환경단체는 수몰 문제로 반대

폭우 피해가 잦은 충북 괴산댐의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송인현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장, 이태훈 충북도의원 등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만 내리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유틀렸는데, 1980년 이후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며 "괴산댐을 이대로 둬가는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발전용 댐인 괴산댐은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비교해 유역면적은 4분의 1 정도로 넓지만, 총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폭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곽명환 충주시의원도 지난 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은 치수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목적댐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다시 짓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여하는 전국 댐연대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괴산댐 하류의 이번 홍수 피해는 괴산댐 월류 때문이 아니라 하천 수용 능력을 넘는 빗물이 일거에 유입됐

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산댐은 홍수 조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하자는 건 충주 수주팔봉 지역에 달천댐을 짓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산은 물론 청주·충주·보은 일부 지역이 수몰될 수 있는 괴산댐 증축이나 달천댐 신축을 모두 반대한다"며 "개발 방식 자체를 바꿔 중소형 저수지 등 다양한 '물그릇' 조성을 추진해 수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57년 건설된 괴산댐은 국내 기술진이 시공한 최초의 발전 전용 댐이다.

이 댐은 유역 면적에 비해 댐 용량이 작아 홍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 15일에도 집중호우로 물이 넘치면서 하류인 괴산과 충주 지역에 침수 피해를 초래했다.

/ 최경희 기자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우리가 힘을 모을수록****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노래로, 말로 전해온 옛이야기 무대 벗어난 공연예술을 만나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전시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도서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시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중앙극장과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춤향과 몽룡 등 우리의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과 공연 예술을 다룬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 이야' ('사랑가'의 한 대목)

전시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옛이야기인 판소리를 다루면서 시작한다.

'춘향가'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그로부터 약 6년 지난 1982년 공연에서는 주연 배우의 사진이 담겨 있는데, 대중을 겨냥해 나온 딱지본 소설의 화려한 표지 그림과도 다른 느낌이다.

이주현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장은 "무대에서 만나던 무용, 연극, 창극 등 각종 공연 예술을 도서관에서 만나는 새로운 전시"라며 책과 공연 자료를 비교하면서 관람해달라고 조언했다.

전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 설화도 주목한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한해 한번 만나는 칠석의 유래를 꾸며낸 '견우직녀 설화', 비범한 능력과 날개를 지녔으나 꿈을 폐지 못한 '아기 장수 설화' 등을 다른 공연과 문학 작품을 소개한다.

다양한 설화가 담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영인본(影印本·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것도 함께 전시해 옛

국립중앙도서관-국립극장, 판소리·설화 다른 문학·공연 자료 소개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춘향가'는 춤향과 몽룡의 신분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 소리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글 소설로도 이어지는데, 줄거리에는 같아도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른 종류가 1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극장이 31일부터 선보이는 특별전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도서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은 춤향가처럼 책과 다양한 공연예술로 사랑 받은 옛이야기를 조명한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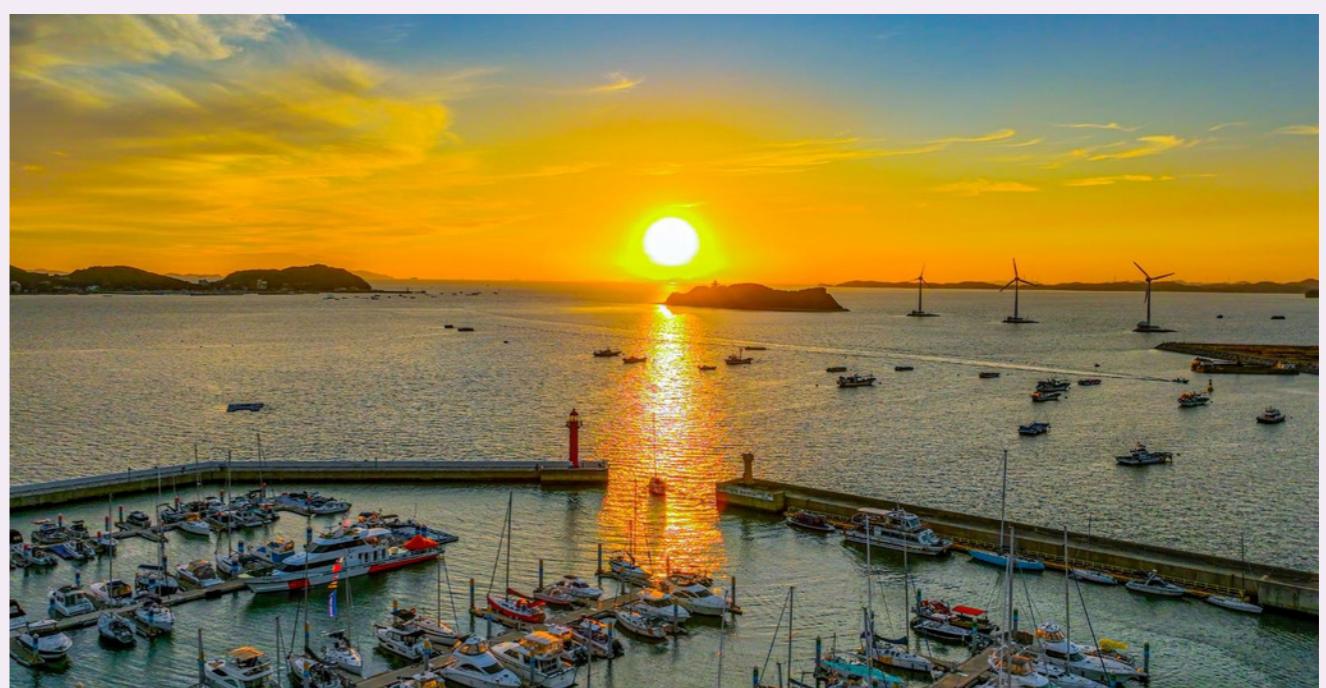
이야기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전시 말미에는 1960~1970년대 국립극장에서 선보인 여러 공연 포스터가 관람객을 맞는다.

과거 극장 직원들이 하나씩 모은 신문스크랩북, 공연 사진 필름 등은 무대에 올려지는 순간 사라지는 공연예술을 기록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전시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11월 14일부터는 국립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이지해 기자



화성 전곡항

폭염을 식히는 낙조 풍경...경기관광공사 바다 여행지 6곳 추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시원한 바다 풍경이 절실히 울여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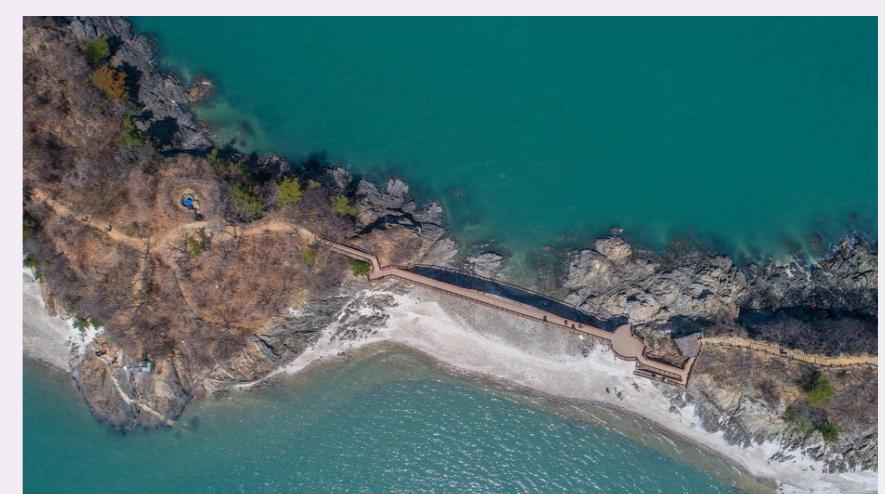
31일 경기관광공사는 '8월 가볼 만한 경기바다 여행지'로 6곳을 추천했다.

화성 '전곡항'은 파도가 적고 수심이 3m 이상 유지돼 낚시와 수상레저의 명소로 꼽힌다.

마리나시설이 갖춰져 있어 매년 6월부터 요트 승선 체험을 비롯해 수상 스테이지 공연, 어촌마을 체험 등 다채로운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해안 굴곡 부분에 돌담을 쌓아 그 안에 갇힌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 방법인 독살 체험도 할 수 있다.

안산 '방아머리 해변'은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밀물 때면 전형적인 백사장 풍경을 보였다가 썰물이 되면 넓은 갯벌로 변하는 두 얼굴의 해변이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대부해솔길은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인근



안산 방아머리 해변

구봉도 전망대에서는 낙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시흥 '배곧한울공원'은 오이도에서 월곶포구까지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는데 바다 건너 고층으로 솟은 송도 신도시 풍경이 손에 잡힐 듯 보이고 북쪽으로는 오이도의 한적한 포구 모습이 정겹게 펼쳐져 있다.

여름철 운영되는 해수 체험장은 시

흥 시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 가족 나들이 이들이 북적인다.

이밖에 갯벌과 염전의 정취를 간직 한 시흥 '갯골생태공원', 12.7㎢ 거친 안산 '시화 방조제'와 '시화나래조력공원', 초계함으로 62년간 바다를 지키다 2006년 퇴역한 운봉함을 전시관으로 개조해 조성한 '김포함상공원'도 추천 했다.

/ 김강우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회사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 되나요?

될 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감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 KB 국민카드**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빌리티 기술의 미래, 현대모비스가 함께합니다

0.1	배터리 팩	전력 반도체			
0.2	ADAS	SW 개발	인포테인먼트 헤드유닛		
0.3	전자제어 기술	전방 레이더	UAM 기술개발		
0.4	자율주행	PBV 기술	인체센서	전기 모터	IT 연동 전자 제어
0.5	라이다	닉비 모니터링	사운드 기술	인체인 레이더	육각기반형 모빌리티 기술
0.6	HUD	코너 케이메	커넥티비티 기술	전자식 제동장치	주차 보조 시스템
0.8					
0.9					
1.0					
1.5					
2.0					

HYUNDAI MOBIS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활짝 웃는 기술

LG의 클린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해양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로
내일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여자단식 세계 1위 등극...방수현 이후 27년만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랐다.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랭킹 포인트 10만3천914점을 쌓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10만1천917점)를 제치고 2위에서 1위로 올라갔다.

한국 선수가 여자 단식 1위에 오른 것은 1996 아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7년 만이다.

남녀 단식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7년 9월 남자 단식 1위였던 손완호(밀양시청) 이후 6년 만의 깨거다.

안세영은 올해 참가한 11개 국제대회에서 우승 7차례, 준우승 3차례를 달성했다. 나머지 1개 대회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

지난 3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지난 23일 코리아오픈에서

생애 첫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그 여세를 몰아 전날 일본오픈 우승으로 세계랭킹 포인트를 훕슬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세계랭킹 포인트를

처음 획득한 2018년 2월(1천335위) 이후 5년 5개월여 만에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섰다.

당초 안세영은 일본오픈에서 우승하더라도 세계랭킹에서 야마구치를 역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열렸던 일본오픈 성적이 세계랭킹 계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포인트 인정 기간에는 들지만, 올해 7월 열린 일본오픈과 겹치게 되면서 포인트 집계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일본오픈 우승자인 야마구치는 포인트 총합에서 순위를 뒤지고, 준우승자 안세영은 이득을 봤다.

/ 김호준 기자



하계유니버시아드 2관왕 오른 서민기

한국양궁, 하계유니버시아드서 금메달 4개 수확...서민기 2관왕

한국 양궁 대표팀이 제31회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한국은 3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대회 양궁 종목에서 리커브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따냈다.

또 캠파운드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1개씩 수확했다.

첫 금메달은 캠파운드 여자 대표팀이 가져왔다. 조수아(현대모비스), 한승연(한체대), 심수인(창원시청)으로 이뤄진 캠파운드 여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캠파운드

/ 윤경성 기자



변상일, GS칼텍스배 첫 우승
세계기전 춘란배 이어 2관왕

한국 바둑랭킹 3위 변상일 9단이 7월에 만 두 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변상일은 31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8회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제3국에서 최정 9단에게 20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종합전적 3-0으로 최정을 완파한 변상일은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변상일은 26기와 27기 대회 때도 결승에 올랐으나 잇달아 신진서 9단에게 패하며 두 번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 19일 메이저 세계기전인 춘란배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던 변상일은 국내기전 타이틀까지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 오윤성 기자

한국 유도 간판 김민종, 일본 샛별 나카무라 꺾고 유니버시아드 우승



를 한판승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종은 31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유도 남자 100kg 이상급 결승에서 나카무라를 경기 시작 2분 5초 만에 빗당겨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카무라는 지난해 국제유도연맹(IJF)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 유도의 샛별이다.

김민종은 나카무라에게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며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자졌다. 김민종은 다음 달 헝가리에서 열리는 IJF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해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임은수 기자

김우민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아니 ‘4관왕’ 목표”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서 5위, 800m서는 한국신기록



202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계영 800m 결승전에서 한국 선기록으로 6위를 차지한 황선우(왼쪽부터), 이호준, 김우민, 양재훈이 31일 오후 인천체육관 제1터미널로 귀국해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가락 3개를 들었던 김우민(21·강원도청)이 곧 하나를 더 추가해 ‘4개’를 꾸몄다.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에서 얻은 자신감을 동력으로 김우민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4관왕’에 도전한다.

세계선수권을 마치고 31일 인천체육관 입장장으로 들어선 김우민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된다”는 취재진의 부추김에 김우민은 수줍게 웃으며 손가락 4개를 펴고 ‘4관왕 의지’를 드러냈다.

여대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단일 대회 4관왕에 오른 한국 선수는 없다.

최운희가 1982년 뉴델리 대회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3관왕에 올랐고, 박태환이 2006년 도하와 2010년 광저우에서 두 차례 3관왕을 차지했다.

김우민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800m, 1,500m, 계영 800m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우민은 남자 자유형 400m 예선(3분44초50)과 결승(3분43초92)에서 연거푸 개인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톱5에 안착했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3분45초 64로 6위를 했던 김우민은 1년 사이에 기록을 1초72나 단축하며 세계선수권 개인 최고 순위도 5위로 한 계단 올렸다.

지난해와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 오른 아시안 선수는 김우민, 단 한 명뿐이다.

김우민은 남자 자유형 800m에서는 7분47초69로 박태환이 2012년 8월 런던올림픽에서 세운 7분49초93을 2초24 당긴 한국기록도 세웠다.

박태환의 자유형 800m 기록은 2012 런던 올림픽 1,500m 경기 중 측정한 ‘800m 구간 기록’이다. 공식 800m 경기였다면 박태환이 기록을 더 단축했을 가능성은 크다.

/ 최준용 기자

한국 바둑랭킹 3위 변상일 9단이 7월에 만 두 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변상일은 31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8회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제3국에서 최정 9단에게 20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한국 바둑랭킹 3-0으로 최정을 완파한 변상일은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변상일은 26기와 27기 대회 때도 결승에 올랐으나 잇달아 신진서 9단에게 패하며 두 번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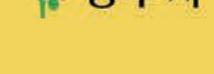
지난 19일 메이저 세계기전인 춘란배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던 변상일은 국내기전 타이틀까지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 오윤성 기자

K-문화를 담다 선비세상

한국,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6개 테마의 한국 문화 속에서
선비문화를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K-문화테마파크’

영주시



한옥촌

#디지털 구구한도
#당호짓기 #목란도 그리기
#선비의 의관정제 #AR 풍속화
#삼일유가 오토마타

한식촌

#미디어소반 #일상의 건강식
#자연을 담은 삼합반상

한지촌

#학지뜨기 공방 #전통기구 고비
#느린 우체통

한글촌

#총민정을 탁본 체험
#한글 날말 퍼즐

한음악촌

#선비들의 음악편지
#음악이 머물던 순간



장르를 변주하는 이병현의 힘…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난 후 변해가는 인간상 그려…장르 재미·무거운 메시지 조화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서울 도심에 ‘우웅’하고 둔중한 소리가 들린다.

이어 한쪽 땅이 움기하고, 도로와 집은 솟구쳐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한다. 지진은 파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움직이며 도시를 헤집어놓는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재해를 피해 도망쳐 보지만 대자연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다.

엄태화 감독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전형적인 재난물로 시작한다. 하지만 재난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재난 이후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다른 재난 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장르 역시 블랙코미디로, 공포로, 비극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중심에는 겸증된 배우인 이병현이 있다. 그는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아파트’의 새로운 임주민 대표 ‘영탁’을 연기했다.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가 점차 광기에 사로잡혀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영화의 장르는 자연스레 변주된다. 탄탄한 각본과 매끄러운 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속 한 장면

출 떠도 있지만, 이병현의 뛰어난 연기가 스토리에 개연성과 자연스러움을 더해준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장르적 재미에만 몰두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善)은 무엇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사회인지 질문한

다. 한 아파트에 살지만 저마다 윤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재난 이후를 극복해나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관객을 고민에 빠뜨리게 할 듯하다.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영상은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시각특수효과(VFX)를 활용해 도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이후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구현했다. 황궁아파트 세트는 아파트를 새롭게 지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다.

게시판에 붙은 각종 광고물과 작은 글씨 등 디테일까지도 신경 썼다.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주로 선보이는 김승ぬ 작가의 웹툰 ‘유쾌한 왕따’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했다. 그래서 읊여를 극장가에 걸리는 한국 대작 4편 중 가장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때때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기도 한다.

엄 감독은 31일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 타워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갑자기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영화”라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8월 9일 개봉. 130분. 15세 관람가.

/ 임은주 기자



인피니트, 5년 만에 완전체 컴백 “쉽지만은 않았기에 더 뿌듯”

그룹 인피니트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미니음반 ‘비긴’(1begi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동에 다시금 시동을 걸었다.

김성규는 “멤버들과 다 같이 전 소속사(율립) 이중엽 대표를 만나 말씀드리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4월에 너(김성규) 생일이지? 네 생일 선물로 (상표권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셨다”며 “이 자리에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속사 설립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신보에는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New Emotions)를 비롯해 인트로 ‘13’,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덤에 대한 멤버들의 진심이 담긴 ‘시차’·‘아이 갓 유’(I Got You), 멤버들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곡 ‘파인드 미’(Find Me) 등 총 여섯 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는 독특한 곡 진행이 멤버들의 풍성한 보컬과 잘 어우러진다. 신곡 안무는 과거 선보인 과격한 ‘칼군무’와는 달리 나른하고 섹시한 매력을 담아냈다.

인피니트는 지난 주말 TV 음악 프로그램 사전 녹화를 하다가 팬들을 마주하고 눈물도 쏟았다.

/ 강균성 기자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K팝 그룹 첫 21억뷰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K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21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31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4시 27분에 21억뷰를 넘겼다. 2018년 6월 공개 이후 약 5년 1개월 만의 기록이다.

블랙핑크의 미니음반 ‘스퀘어업’(SQUARE UP) 타이틀곡인 ‘뚜두뚜두’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기를 끌며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다.

이 노래는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6억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 중이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9천30만명으로 전 세계 가수 1위다. 1억뷰 이상 영상만 43편에 달하고,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324억회 이상이다.

/ 박소희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IFT 거창국제연극제 자연·인간·연극 Nature, Humans And Plays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2023.7.28.금 → 8.11.금 (15일간)

The 33rd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수승대 및 거창군 일원

문의: 055-945-8455~6

예매하기: 거창국제연극제
www.kift.or.kr



주최·주관: 거창문화재단

후원: 경상남도

거창군

KB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와~ 환전이 24시간 되네!”

“환율 낮을 때 미리 사둬야지”

“최대 90% 환율우대도 받을 수 있네!”

KB스타뱅킹에서 환전하고, 지금 떠나실래요?

KB외화머니박스

어디든, 언제든, 누구든 KB의 새로운 환전 서비스로
여행가는 길이 더 쉽고 더 든든해집니다

“외화를 집까지 배달해주세요~”

“외화를 선물할 수도 있대요”

“예택도 어메이징!”

“역시 환전은 KB야!”



KB외화머니박스 바로가기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1 최대 90% 환율 우대

놀라운 환율 혜택은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되팔기, 선물을 자유롭게!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환전한 외화 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편하게!

• 외화 실물 수령 희망 영업점별로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신 권종(소액권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사정의 현찰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시 적용한 환율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 및 이자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그외통화 3%) • KB외화머니박스 환전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첫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